제14강 안젤름 키퍼 : 묵시록적인 사물의 절규 I

(1교시-0827-01)

그림1 1993년 키퍼 전시회

※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1945-현재) : 독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 키퍼 예술의 출발점은 퍼포먼스와 해프닝의 요소들을 가미한 개념주의적 측면을 보인다. 조셉 보이스의 영향. 예술과 생활 간의 대화를 추적해 들어가는 점이 돋보인다. 신화와 역사의 상호작용에서 창조되는 긴장에 몰두.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회 개최.

◎ 키퍼의 예술 세계

- 색감이 대체로 음울하고 위협적이다.
- 존재론적 목소리를 통해 작품을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과오를 성찰케 한다.
→ '반성을 통한 새로운 세계로의 승화'

- 한 눈에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실존철학적 깊이)
- 예술가는 무엇인가 : 세계와 인간 간 쌍방적 의미에서의 영매
→ '인간의 말함이 아니라 존재의 말함이다.'
→ 존재가 들이닥침(사건-진정한 의미의 사유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감동을 넘어선 충격을 줌. '존재의 사자'
- 릴케, 하이데거의 영향

(2교시-0827-02)

◎ 주요 작품들을 통해 본 키퍼의 예술 세계

▲ 1969년부터 1980년대 초

- 자기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소명의식과 더불어 독일의 역사와 전통에 초점을 맞춤.

* 그림2 <미지의 화가에게>(1983)

- 팔레트의 의미 : 예술가의 무기이자 영웅적인 투쟁의 상징.
- 황량한 파시스트 건축의 기능을 그곳을 추종한 사람들에 의해 본래 의도된 의미를 지워버린 공간으로 바꾼다. (예술가와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예술가의 과업을 위한 낙관적인 기념물)

▲ 1980년대부터 90년대

- 이미지의 물질적인 표면과 그 시각적인 복합성을 전면에 내세움.
- 납, 짚, 재, 머리카락, 모래, 진흙 그 외 구체적인 물건들의 사용.
- 선과 악의 공존. 그 외 많은 해석이 가능한 애매성에 의해 특징지워짐.
- **메타적인 역사의 창조** : 바그너의 아마겟돈, 제2차 세계대전, 대량학살, 신학, 유대의 형

www.artnstudy.com

이상학, 연금술과 보편적 통일성의 개념들이 충격적인 물리적 이미지들과 설치를 통해 결합되어 나타남.

▲ 키퍼 작업의 기능

1) 풍부한 표현성을 통해 채워져 있는 기념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능함.
2) 연상되는 내용들을 지각적으로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능함.

* 그림3 <두개의 강이 흐르는 땅 또는 여대제사장>(1986-1989)

- 주제적, 물질적, 과잉적 측면을 잘 드러내는 조각품.
- 책의 의미 : 다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 등장하는 실험적인 영역.
- 독일어와 영어로 연결된 이중 제목의 의미 : 'Zweistromland'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땅.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연상을 일으킴.
→ 문명의 발상지로 바빌론의 문화를 함축. 비옥한 땅인 동시에 홍수의 재난에 파괴될 수 있는 곳 등등.
⇒ 지적인 지식, 환상, 신화,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이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책들에 집결됨.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간직한 책들은 우리의 역사와 현재 우리 삶의 앞선 조건들이 저장되어 있는 납 상자들이 된다.

※ 키퍼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동시에 역사를 현재에 펼쳐 보여준다. 엄청난 존재론적 깊이.

- 연금술과 예술과의 관계
→ 일상적인 물건들을 뒤집어 관객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고자 함.

www.artnstudy.com